

전국불청대회 650명 참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가 6월 11~12일 순천 청소년수련원에서 창립 85주년 기념 제24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65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청년불자여, 미래의 등불을 밝히자'. 이번 대회는 통일·환경·NGO·수행마당, 어린이 불교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을 스님의 환경 관련 강의도 눈을 끌었다.

김익석 회장은 "탄핵 한웅은 선사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단순간도 정제법이 없는 늘 깨어있는 청년 보살·청년 만해가 되도록 수행 정진해나가자"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국립공원사망 의원모임 결성

국립공원의 생태 보존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윤원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6월 13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국사모)을 결성했다. 국사모에는 열린우리당 불자모임 '이타회' 윤원호, 김영주, 권선택, 정종길, 조성래 의원을 포함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입했으며, 김영주 의원이 회장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책임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

국사모는 앞으로 국립공원 계곡수의 오염문제, 무분별한 인산불 채취와 그로 인한 생태계 훼손, 난개발문제 등 국립공원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한 국립공원내 전통사찰 수행환경 보존, 오페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신도회 신도증 팔았다"

종신회, 스님에 사과 요청

고창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이 6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신도회가 신도증을 팔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범여 스님이 지적한 '신도증 팔아 먹는' 행위는 10년 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등록사업이며 중앙신도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장주 스님은 올 10월 경 가진 '불국종흥을 위한 전국사암연합회'를 창립한다면서 일부 신도와 단체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지연·남동우 기자

교법사단 창립 60주년 성과·과제

6월 17일 창립 60주년 기념법회를 가진 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전국 23개 초중고에서 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35명 교법사들의 단체인 전국교법사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청소년 불자 육성을 감당하고 있는 교법사단의 비중을 감안할 때 60년을 맞은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열악한 환경 속 청소년 포교 매진

1945년 해방이후 개별 불교종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법사를 임용하면서 시작된 교법사 제도는, 1969년 전국교법사회(초대회장 김윤주) 창립을 거쳐 1991년 전국교법사회에서 교법사단으로 확대재편하면서 65명의 교법사가 거쳐 갔고, 35명의 현직 교법사가 활동하는 조계종단 내 핵심 청소년 포교기구로 자리 잡게 됐다.

그간 교법사단이 쌓아온 성과는 고스란히 청소년 포교와 직결된다. '교법사'라는 단어에서는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이미지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교법사단은 불교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및 시청각 교재의 발간 등 종립학교 교수의 업무는 물론이고 청소년 법요집 발간, 신도교육교재 편찬, 파라미타 창립 및 각종 청소년 단체 제반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00년에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

년에 한 권씩 청소년불서들을 발간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현행 국정교과서 내의 불교관련 오류를 지적한 것도 교법사단이었다.

낮은 위상, 그 이유는? 아직까지 청소년 포교가 미진하

파라미타 창립 등 청소년 단체 활동 앞장  
보직수당 신설·지위 보장 등 재정지원 절실

교, 교법사단의 활동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턱없이 모자라는 종단의 재정지원과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법사들은 "단순수치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은 법사들의 모임인 군불교위원회에 지원되는 조계종의 예산은 교법사단에 지원되는 예산의 두 배"라고 지적한다. 지원액수가 곧 정책의 방향

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화정책을 펼칠 만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 불교종립학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법사단이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종단의 재정적 지원'이

라는 대답이 1위(60.9%)를 차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교법사의 신분적 위상이 부족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 있다. 2001년 9월 6일에 개정된 조계종 중무원법 총칙 제1장 3조에는 '종립학교 교법사'를 사무보조와 동일한 '일반직 중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종립학교 내에서조차 '일반평교사'로 대우받는

곳이 허다하다.

나이갈 방향은?

교법사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화 활동비 등의 보직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교법사의 지위를 학교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교법사단 내의 자체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법사단은 정부의 '사립학교 개정안'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립학교 내 청소년 포교활성화 방안으로 시청각과 멀티미디어를 통한 '불교문화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포교전략도 세워놓았다.

또 신심이 깊은 학교장·이사장을 불교교육연합회의 회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립학교 수를 늘려 교법사단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이은비 기자

복지시설 '교구분권화' 체제 갖춰야

조계종 복지재단, 창립 10주년 아젠다개발 세미나

“중앙결정기구로서의 복지재단 위상을 높이고 불교복지시설을 교구별로 관리할 수 있는 '교구분권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6월 16일 세종정 하림각에서 '불교사회복지 아젠다개발 학술 세미나'를 통해 불교복지 지향점 찾기에 나섰다.

세미나의 서막을 연 '조계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발제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전임 연구원은 사회복지 환경에 적합한 불교복지 틀 찾기를 시도했다. 조 전임연구원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은

권한이 미약해 종단 중앙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과 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고 복지시설의 '교구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외에도 이날 세미나는 탈북인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복지의 혜택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과 불교복지의 현안인 승려노후대책 아동복지 자원봉사 및 복지기금 문제 등 16개의 주제 발표를 1분과와 2분과로 나뉘어 실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원로의

원 정무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복지시설 종사자와 타종교 시설 종사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불교복지의 미래를 토론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는 6월 23일에도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교사회복지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4개 주제를 놓고 열린 토론을 계속 진행한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연화회, DNA 장례서비스

유전자 정보 캡슐에 보관

최근 수목장 산골 등 불교식 장례문화 확산에 따라 불교 장례서

비스 전문업체 연화회(대표 유재철)는 유가족이 고인의 유전자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장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연화회는 6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명과학 기술을 접목한 장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화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DNA 장례서비스'는 화장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사회 일반에서는 아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데서 고안됐다. 연화회는 "화장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고열로 인한 고인의 모든 정보 소멸, 유족들의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엔진센터'라는 법인도 이미 설립한 연화회 유재철 대표는 "장례서비스 사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며 "7월 초 자체 브랜드의 DNA 장례용품 및 추모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6월 29일 개원하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전경. 현대불교자료사진

동국대 일산병원 29일 개원

권위있는 의료진·첨단시설 갖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석현)이 1994년 병원설립 승인 후 10년만인 6월 29일 정식 개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불교병원은 메머드급 종합병원으로 연건평 2만7000평에 총 1000병상(양방 850, 한방 150)을 갖춘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의 불교계 유일 대형종합병원이다.

일산불교병원은 1998년 IMF의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000만 불자들의 열망 속에 기공식을 치렀으나 2003년 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재단 내부사정으로 개원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전 고래대 구로병원장 이석현 원장이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9개월여 만에 개원준비를 마쳤다. 5월 31일부터 모의진료를 실시해 온 일산불교병원은 EMR(자동의무기록), PACS(의료영상전송시스템), OCS(처방전달시스템)등을 갖춰 국내최초의 양·한방 디지털 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29일 개원(한방은 7월 18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개원이 2년여 늦춰 졌지만 국내최고의 의료진과 초대형 시설,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해 서울소재 전국권 병원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일산불교병원은 소화기 분야의 민 불교계 유일 대형종합병원이다. 이석현 원장은 "불자들의 원력과

삼보정재로 만들어진 병원인 만큼 의료진과 300여 직원들이 불교적 심성을 갖춘 보살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게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자랑스러워 할만한 국내최고의 진료, 연구, 교육기관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개원법회는 9월 하순에 병행할 예정이다. 031)961-7004 www.duh.org 조용수기자

보원사지 쓰고 불교계-市 대립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 보원사(주지 정범)가 6월 11일 개원식을 병행함에 따라 사적 제316호 서산보원사지 발굴·정비계획을 둘러싸고 불교계와 해당지자체인 서산시의 대립이 첨예하다.

서산시가 보원사지를 개심사·서산마애삼존석불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사적지 내 개인소유 땅 매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사적지 내 일부 토지를 보유 한 보원사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보원사는 토지수용을 목적으로 한 서산시의 감정평가를 거부하며 토지 매각의 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 불교계와 서산시 갈등의 핵심은

서산시의 발굴·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불교계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데 있다.

보원사 주지 정범 스님은 "백제불교의 흔이 갖든 성지를 불교계와 한 마디 상의 없이 파헤치고, 관광지화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교계가 보원사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시 한 관계자는 "보원사가 폐사지로 방치된 역사가 400여년에 달하는데, 700억원 가량 투입되는 발굴·정비계획 착수 시점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불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인사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6월 13일(음, 5월 7일) 涅槃하신 우암당 혜산 대선사의 능가산 내소사 산중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人事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9년 6月 日

우암당 혜산 대선사 추모재 일정

우암당 혜산 대선사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49재	일시	장소	연락처	주소
초재	6월 19일(음, 5.13)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2재	6월 26일(음, 5.20) 오전 10시	선운사	063)561-1422	전북 고창군 아산면
3재	7월 3일(음, 5.27) 오전 10시	전등사	02)762-0643	서울 성북구 성북2동
4재	7월 10일(음, 6. 5) 오전 10시	홍원사	02)2658-3100	서울 강서구 가양1동
5재	7월 17일(음, 6.12)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6재	7월 24일(음, 6.19)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7재	7월 31일(음, 6.26) 오전 10시	내소사	063)583-7281	전북 부안군 진서면

문의 : 내소사 063)583-7281

우암당 혜산 대선사 장의위원회 · 능가산 내소사 문도일동